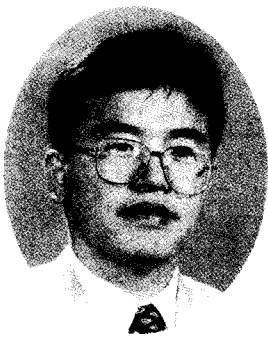


# 한국경제 전망과 주류산업



온 기 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목 차 ■

1. 경기침체 상당기간 지속될듯
2. 체감경기 지속적으로 악화
3. 설비투자는 회복 조짐, 수출증가율은 둔화될듯
4. 국내외 기관들 경제전망 잇따라 하향조정
5. 대외악재 만만치 않아
6. 주류소비 둔화세 지속될 듯
7. 포도주는 수입호조 지속, 맥주와 위스키 수입은 둔화

## 1. 경기침체 상당기간 지속될듯

경기흐름을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지표인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지난해 3분기중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지표는 올 4월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경기가 급락해 98년 8월에 바닥에 이른후 다시 'V'자 형을 그리며 2000년 8월까지 2년에 걸쳐 경기가 급상승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후 우리나라의 경기사이클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잠시 회복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꺾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과거 같으면 경기가 바닥을 통과해 정점에 이르는 기간이 평균 33개월(2년반 내지 3년 정도)이었으나, 최근에는 경기회복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또 그 기간도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2003년초부터 재편된 경기동행지수는 산업생산, 제조업가동률, 도소매판매, 수출액, 수입액, 비농가취업자수, 건설기성액 등 7개 지표를 하나로 종합해 작성되는 지표다. 이들 각 구성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 경기가 관망은 것이고, 반대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경기가 나쁜 것이다.

올 4월 이후 경기사이클이 다시 꺾이고 있

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내수부진 심화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산업생산이나 제조업가동률, 수출입 등의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소비나 설비투자, 건설 관련 지표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산업생산은 매월 30%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두자리수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80% 안팎의 정상적인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재판매는 지난 7월에 전월대비 3.0% 감소(6월중 +4.4%)하였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도 감소폭이 확대(6월 - 0.3% → 7월 -1.9%)되는 등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소매판매 지표를 보면 지난해 1.0%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부진세가 이어져

7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건설기성액은 지난 7월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하고,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토목수주의 호조로 감소율이 크게 축소(6월 - 36.9% → 7월 -3.3%)되었으나, 10?29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비스업의 경기부진도 심화되어 7월중 서비스업활동지수가 전년동월대비 감소로 전환(전년동월대비 6월 0.8% → 7월 -1.2%)되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교육서비스, 금융·보험 등의 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소비관련 지표

(전기대비, %)

	2003.6월	7월	2004.5월	6월	7월
■ 소비재판매액지수 (전년동기대비, %)	-0.4 (-3.0)	-1.4 (-6.4)	-0.9 (-4.7)	4.4 (-0.3)	-3.0 (-1.9)
내구소비재	-2.1	-1.6	-5.0	0.8	2.9
준내구소비재	-2.3	-0.6	1.0	4.3	-5.2
비내구소비재	1.3	-1.9	0.0	6.0	-4.5

### 건설투자관련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03.6월	7월	2004.5월	6월	7월
■ 건설기성액 <sup>1)</sup>	20.9	17.1	9.7	8.1	10.6
■ 건설수주액 <sup>1)</sup>	112.7	68.2	-24.0	-36.9	-3.3
■ 건축허가면적	156.2	31.8	6.6	-55.7	-24.9

주 : 1) 명목금액 기준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건설교통부

## 2. 체감경기 지속적으로 악화

일정기간 동안에 창출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창출액, 즉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가리키는 지표가 바로 경제성장률이다. 이는 매월 발표되는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과는 달리 분기별로 작성되는데 한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활동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실질기준(전년동기비)으로 지난해 3.1%를 기록했다. 10·26 사태 직후인 1980년 -2.1%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9%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올들어 1분기에는 5.3%, 2분기에는 5.5%로 성장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3분기에는 성장률이 4%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 주된 이유중 하나가 기업과 소비자들의 체감경기 악화다.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작성하는 BSI는 2002년 5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해 2월에는 89를 기록하기도 했다. BSI가 100을 밑돌면 미래의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이므로 그동안 기업의 체감경기는 크게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BSI는 지난해 9월 이후 미약하나마 상승세를 보여 올 3월에는 114.9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BSI는 다시 떨어져 9월까지 4개월 연속 100 밑에서 맴돌고 있다.

기업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기업들

이 설비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고 경영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하게 돼 일정 시차를 두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경기가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예고해 주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6개월후의 경기와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소비자기대지수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9월 현재 485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한 가구당 평균 2994만원)와 신용불량자 급증 등의 영향으로 소비여력이 줄어든데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기부진으로 실업에 대한 공포가 상존하고 있고, 인구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연금, 의료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소비자들의 체감경기 악화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최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향후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입이직자비율, 기업경기실사지수, 종합주가지수, 자본재수입액, 설비투자추계, 건축허가면적, 순상품교역조건, 충유동성, 재고관련 지표 등 9개지표를 종합해 작성되는 선행지수의 전년동월비는 작년 5월부터 상승했으나 올 4월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적어도 향후 3~6개월 후의 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임을 예고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설비투자는 회복 조짐, 수출증가율은 둔화될듯

내수를 설명하는 주요 지표인 설비투자 추계는 올 7월 전년동월대비 7%대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8월에는 다시 2%대로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이 장기간 설비투자를 해오지 않고 기존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전략을 써왔으나, 더 이상 이 전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위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제조업 생산증가율에서 생산능력증가율을 뺀 것으로서 생산증가율이 그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데 비해 생산능력은 그다지 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커져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설비투자는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투자는 기존생산 설비에 대한 대체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설비투자 추세가 느다고 해도 그 증가율은 한자리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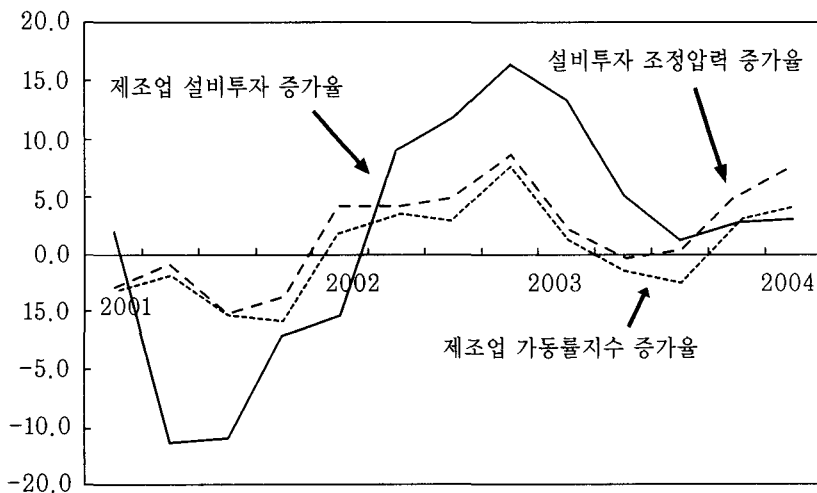
수출은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라 수출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어 월간 수출액이 200억달러를 넘게 되었다. 하루 평균 수출액도 9월에는 10억달러를 돌파하게 되었다. 수출증가율은 매월 30% 안팎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율 자체는 5월 41.9%를 기록한 후 6월 38.1%, 7월 36.3%, 8월 29.3%, 9월 23.5%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올 1~9월까지 누계로 수출은 1850만 3000달러로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35.1%를 기록했다. 수입은 같은 기간 1626억 3000만달러(26.2% 증가)로 무역수지는 22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을 보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등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컴퓨터와 선박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중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분기별)



주 :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

---

국, 유럽, 아세안,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수출증가율은 올 연말로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가 고유가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여겨지는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규모 자체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른 기술적 반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예측 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경제상황을 종합해보면 올 연간 경제성장률은 5%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는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내년에는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 4. 국내외 기관들 경제전망 잇따라 하향조정

최근들어 세계 유수 전망기관들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조정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수출증가율 둔화 등을 이유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예상한 4.8%에서 4.4%로 하향 조정했다. 다른 아시아 각국 성장률이 거의 모두 상향된 가운데 한국 성장률만 0.4%포인트나 끌어내린 셈이다.

ADB는 또 수출증가율 둔화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내년 한국 예상 성장률을 5.2%에서 3.6%로 크게 낮췄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뉴스위크와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해외

유력 경제지와 시사 전문지들도 최근 잇따라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WSJ은 한국은 일자리 감소와 기업부도 증가, 시들해지는 창업 열기 등으로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도 최근 보도에서 실업률 상승으로 소비자 신뢰가 떨어져 정부의 내수 진작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적신회'를 켜다.

뉴스위크는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격차가 벌어져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또 한국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시장메커니즘이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루치 샤퍼 모건스탠리투신운용 연구원의 지적을 전하기도 했다.

FT는 최근 FTSE그룹이 한국을 선진국지수에 편입하지 않기로 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쓰고 있고 기업들을 거시경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계최대 금융그룹인 씨티그룹은 지난 8일 한국의 기술제품 수출 둔화를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4.3%로 낮추는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도 4.5%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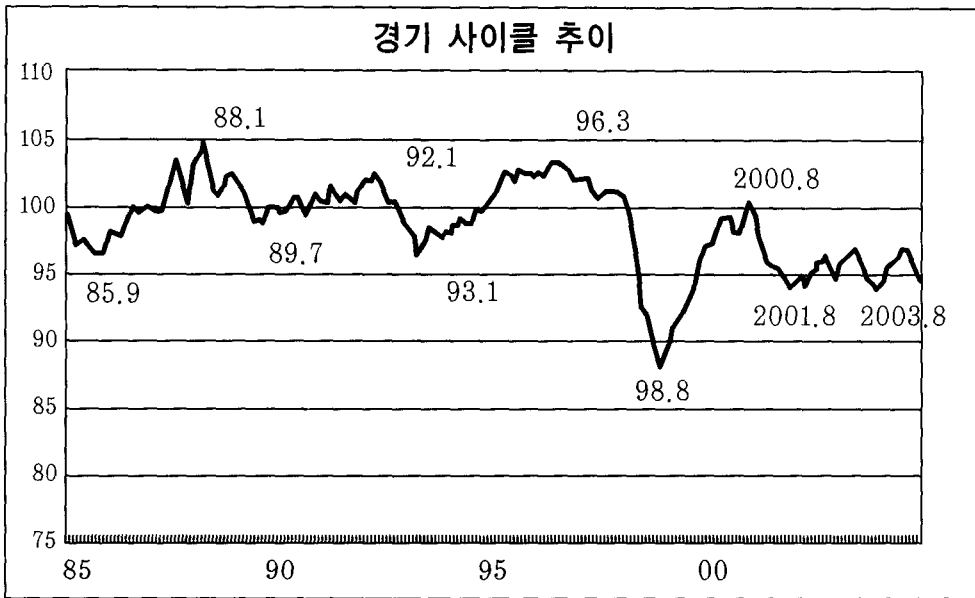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5.2%에서 4.6%로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도 지난 4월에 발표했던 4.8%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민간연구소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성장률을 5.3%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이 3.7%에 그칠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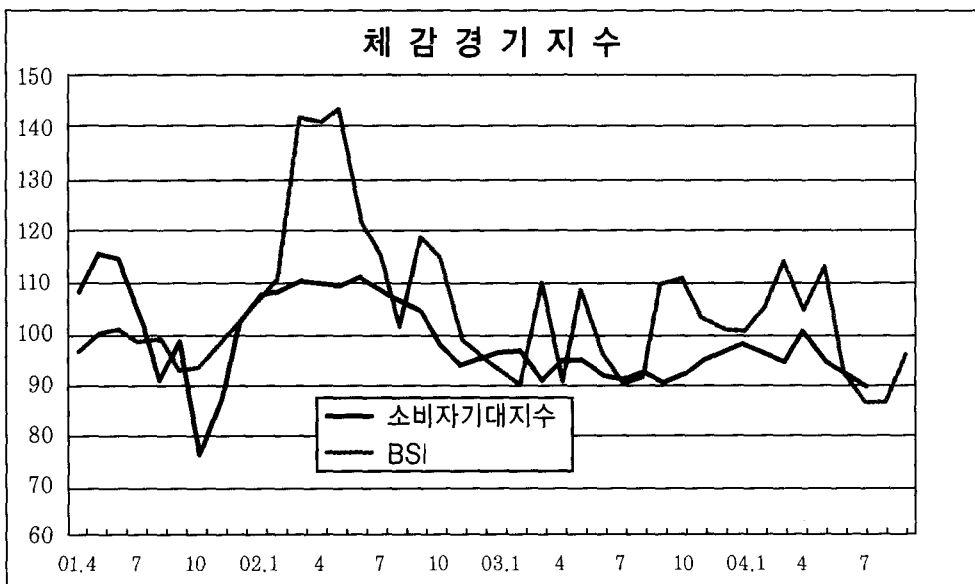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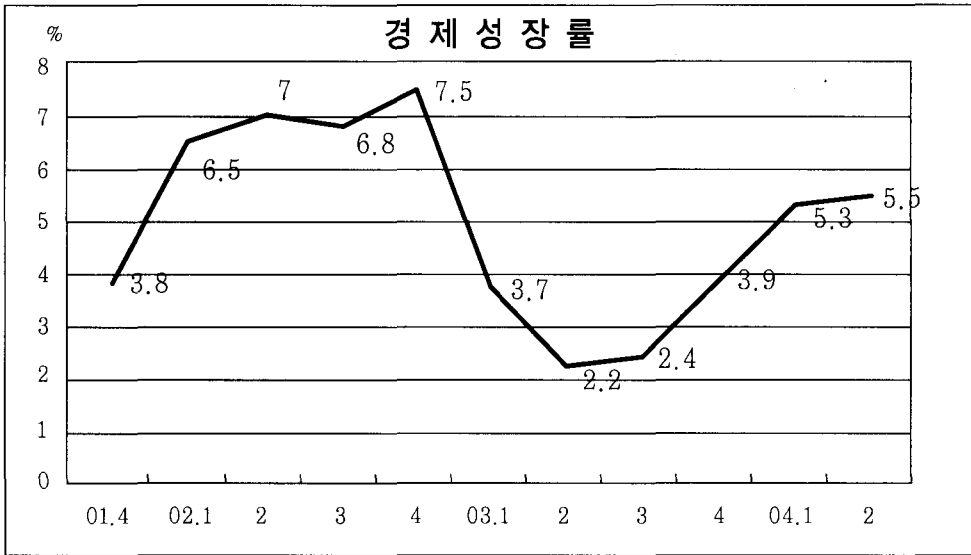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이 4.1%, 한국

경제연구원은 4.4%에 그칠 것으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주 : 경기사이클은 동행지수순환변동치로 파악





## 5. 대외악재 만만치 않아

향후 경기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대외악재가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3차 오일쇼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유가가 걱정이다.

세계적으로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선을 넘어섰고 특히 올들어 세차례에 걸쳐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하루 250만배럴의 증산을 결정했지만 중국, 인도 등 신흥고도성장국가의 원유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유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유가상승세가 쉽게 진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유코스 사태와 베네주엘라의 정정불안, 중동불안 지속 등도 향후 유가를 더욱 끌어올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유가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8억~9억배럴씩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물가급등과

성장률하락, 무역수지악화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 포인트 낮아지고, 소비자물가는 1.5%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가가 뛰면서 금속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알루미늄 가격은 올 10월초 현재 톤당 1875달러를 기록해 9년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구리가격도 톤당 3000달러를 웃도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니켈과 금값도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긴축정책 강화 가능성도 복병이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4월 말 경기과열을 식히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바 있으며, 금융긴축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실제로 설비과잉 단속과 대출억제 등의 1차 긴축조치를 단행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이 주된 설비과잉 단속의 대상이었고,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지불준비율 인상과 공정할인율 인상 등의 조치

---

도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긴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온계라 할 수 있는 물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분기 2.8%에서 7월과 8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5.3%로 크게 올랐다. 중국 대출금리의 평균이 5.31%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실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가 된 셈이며, 중국 정부는 2차 긴축조치로서 금리인상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는 우리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증시가 충격을 받을 것임은 물론, 중국의 경기가 둔화돼 우리의 대 중국 수출도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미국의 잇따른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미국 경기둔화 가능성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달러화 약세(원화 강세)도 걸림돌이다. 달러화 약세는 우리의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수출에 찬물을 끼얹어 경기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올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적어도 그 때까지는 달러화 약세 기조를 유지해 갈 가능성이 높아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올 2월초에 개최된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각국대표들이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Excess Volatility)과 무질서한 움직임(Disorderly Movements)이 경제성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향후 환율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율 향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성명이 '환율 유연성이 부족한 국가나 지역은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환율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한 점으로 미뤄

볼 때 향후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 통화의 절상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압력에 밀려 만일 중국 위안화가 절상된다면 이는 원화를 동반 절상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도 중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외환당국이 시장개입을 통해 고환율 정책을 인위적으로 취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고환율 정책 포기압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6. 주류소비 둔화세 지속될 듯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주류소비는 둔화될 수 밖에 없다. 주류는 비내구소비재로서 그 때 그 때의 경기상황에 따라 소비가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류소비에 대한 경기의 영향은 주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이후 19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위스키시장의 침체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다. 경기침체 지속과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한도 제한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위스키업체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른바 '성매매방지법' 발효가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올 3월 22일 입법예고됐기 때문에 9월 23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성매매를 한 당사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



고 있다.

이 법은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사람들의 발길을 뜸하게 해 주류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위스키시장은 경기 침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매달 20%가 넘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해오고 있다. 올 들어서도 경기침체에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해도 제한까지 겹쳐 계속해서 역신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올 상반기 위스키 소비량은 4967kl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7.4kl보다 무려 16.9%나 줄었다. 종류별로는 최고급인 슈퍼프리미엄급의 판매감소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반면, 프리미엄급(12년산)과 스탠더드급(12년미만 산)의 감소폭이 매우 컸다.

포도주 소비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포도주는 1500억원대로 이 가운데 특히 수입포도주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포도주 수입규모는 최근 2년 사이에 두 배로 커진데 이어 올 들어서도 계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7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포도주는 2980만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늘어날 정도다. 같은 기간 위스키 수입이 대폭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포도주 시장은 해마다 신장세를 거듭해 2001년 2310만달러에서 2002년 2939만달러, 지난해에는 4578만달러로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서민의 술인 소주의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다 소비 위축에 따른 반사 이익과 저도주 선호에 적극 부응한 데다 싼 가격으로 서민들이 즐겨 찾기 때문이다.

소주시장은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 상반기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난 4122만상자(360ml 30병 기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진로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에 2245만상자를 팔아 3.4% 늘었다. 시장점유율은 54.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점유율을 고수하고 있다. 두산의 산소주도 전년 5월 누계 대비 0.4% 증가한 409만상자를 기록했다.

맥주의 경우 올 상반기 9710만상자(500ml 20병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4% 감소했다. 그나마 펄트맥주의 선전으로 매출 하향폭이 대폭 축소됐다. 현재 펄트병 맥주는 전체 맥주 판매의 18~20%를 차지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펄트병 맥주 판매량은 3월 198만상자(14.5%), 4월 186만상자(12.7%)를 기록한데 이어 증설된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된 5월에는 무려 295만상자가 팔려 가파른 상승 커브를 그렸다.

## 7. 포도주는 수입호조 지속, 맥주와 위스키 수입은 둔화

주류별 수입현황을 보면 포도주는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맥주와 위스키 수입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포도주는 99년에 133%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다가 2000년 31%, 2001년 16.7%로 증가율이 하락하긴 했으나 2002년 27.4%, 지난해 55.6%로 증가율이 다시 높아졌다. 올들어 8월까지도 포도주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나 늘어났다.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전반적인 소비도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포도주 수입이 늘고 있다는 것

주류 수입실적

단위 : 천달러, %

구 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1~8월)
맥주	5,181 (53.3)	842 (-83.7)	1,941 (130.4)	5,022 (158.8)	11,866 (136.3)	12,802 (7.9)	13,664 (6.7)	9,733 (4.2)
위스키	190,541 (1.9)	109,655 (-42.4)	115,919 (5.7)	180,194 (55.5)	202,355 (12.3)	247,941 (22.5)	250,401 (1.0)	143,569 (-18.8)
포도주	22,809 (39.0)	6,491 (-71.5)	15,122 (133.0)	19,802 (31.0)	23,109 (16.7)	29,432 (27.4)	45,783 (55.6)	34,783 (42.0)

주 : 1) ( )속은 증가율

2) 맥주는 MTI코드 015720, 위스키는 015750, 포도주는 015740

은 주목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소비자  
자들의 포도주 선호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는 얘기다.

맥주의 경우 99년부터 2001년까지 100%를  
넘는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였으나, 2002년  
들어 크게 둔화돼 동년 증가율이 7.9%에 그쳤  
다. 지난해는 맥주수입증가율이 더 낮아져  
6.7%에 그쳤고 올들어 8월까지에는 4.2%로  
수입증가율이 더욱 낮아졌다.

위스키의 경우 수입규모는 여전히 가장 크

지만 증가율 자체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2000년만 해도 55.5%를 기록했던 위스키 수  
입증가율은 지난해에는 1%로까지 떨어졌고,  
올들어 8월까지에는 -18.8%로 대폭적으로 떨  
어졌다.

주류간의 수입증가율 차별화 현상은 소비자  
들의 기호변화와 경기상황, 국내 제도상의 변  
화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장기화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